

일본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유 교텡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를 좋게 소개해 주신 사공 일 박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한국의 재계, 언론계 및 정계의 주요인사들을 모시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더욱이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께서 역사적이고 성공적인 일본 방문을 하고 계시는 바로 오늘 이와같은 기회를 갖게 된 점을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께서는 저에게 일본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일본경제가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일본경제의 몇몇 잘못된 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두가지 주제 — 일본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과 최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일간의 무역분쟁 —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고 이것이 끝난 후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2차 세계대전이후 일본경제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한 데에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 견해로는 다섯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번째 요소는 정부와 민간기업 사이에 유지되고 있는 긴밀한 업무협력체제이고, 두번째 요소는 일본어로 계열(系列)이라고 하는 전략적 제휴, 즉 많은 기업집단간의 협력적 결합입니다.

세번째 요소는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경영자, 피고용자, 은행, 하청업자, 고객, 주주 등 이해집단들간의 협력이었습니다. 소위 기업의 틀 속에서 이해당사자가 서로 반감없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기업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였으며, 결코 서로 의견대립을 보인 적이 없음은 특기할만한 사실입니다.

네번째 요소는 피고용자들의 소속회사에 대한 충성심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충성심은 안정적인고 장기적인 고용체제 — 종신고용제도 —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요소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기업전략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시장이 계속 성장한다는 점과 값싸고 저렴한 자본을 항상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세워졌습니다.

확실히 이러한 요인들은 과거 30~40년간 일본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국내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요인들은 국내외시장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독특한 일본경제의 특성때문에 일본시장이 투명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기업이 일본시장에 진출할 때 차별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일본시장의 이러한 요인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일본 국민들이 과거 회사를 위해 지나치게 자신과 가족을 희생시켰음을 스스로 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 하루 12~13시간, 심지어 14시간씩 근무하는 대신 자신의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추구할만 하다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시장이 영원히 계속 성장할 것이라든가, 적은 비용으로 자본을 이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금에 대한 비용을 상승시키는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식시장이 급격한 등락을 겪고 있음에 따라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본확보를 위한 손쉬운 방법이 더 이상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뒷받침해 온 전통적인 요인들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도전은 어떻게 하면 활력과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세계 시장경제의 여타 모델과 병존할 수 있

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유형으로서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두가지 목표가 일본경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앞서 언급한 첫번째 요소인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업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을 해나갈 수 있다면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업과 정부의 유착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부담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런 유착관계가 일종의 공모로 발전하여 정치가와 관료 그리고 민간기업이 관련된 여러가지 부정을 발생시킨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계열(系列)의 예를 들어보면, 기업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한다면 확실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관계는 매우 배타적이고 차별적이어서 외부의 기업들은 이를 불공평한 것으로 느끼면서 이러한 관행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피고용인의 충성심에 관해서는 모든 피고용인들이 — 일본 뿐 아니라 한국 등 모든 곳에서 —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 대하여 소속감, 애사심 그리고 충성심을 지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많은 기업들이 감원 또는 임금삭감 등을 통해 조직을 재정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의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것은 매우 어려운 과업이지만 우리의 시스템이 세계 여타 지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유지해야 할 요소에 대해서는 계속 힘을 쏟고 개선하거나 버려야 할 요소는 과감하게 추려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강하게 유지해 주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일정수준의 저축률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충분한 저축이 없이 경제가 발전한 경우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지나친 저축은 불균형을 초래하지만 상당한 저축의 부족은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입니다.

둘째, 높은 수준의 노동윤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교육과도 관계가 되겠지만,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높은 수준의 노동윤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름아닌 피고용인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의식과 자긍심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시경제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을 잡고 금리수준을 낮추는 것이 정책목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재정과 대외경쟁력을 건실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의 일본경제는 경기침체, 거품경제 또는 구조적인 문제의 여파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나, 제가 앞서 언급한 중요한 요인들 중 몇가지 즉, 저축, 노동윤리, 낮은 인플레이션, 저금리, 대외경쟁력 그리고 강력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경제가 이러한 요인을 유지하는 한 언젠가 다시 발전의 길로 되돌아올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번째 주제인 미·일 무역마찰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문제는 매우 편안한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미묘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달 호소카와 총리와 클린턴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양측이 상대방이 현재 처해 있는 국내 사정 및 정치적 어려움을 서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 있다고 봅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미국내 정치적 입장은 편치 못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도 고용문제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또한 의료보장제도의 수정과 관련하여 의회와 절충하여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

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유형으로서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두가지 목표가 일본경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앞서 언급한 첫번째 요소인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업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을 해나갈 수 있다면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업과 정부의 유착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부담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런 유착관계가 일종의 공모로 발전하여 정치가와 관료 그리고 민간기업이 관련된 여러가지 부정을 발생시킨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계열(系列)의 예를 들어보면, 기업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한다면 확실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관계는 매우 배타적이고 차별적이어서 외부의 기업들은 이를 불공평한 것으로 느끼면서 이러한 관행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피고용인의 충성심에 관해서는 모든 피고용인들이 — 일본 뿐 아니라 한국 등 모든 곳에서 —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 대하여 소속감, 애사심 그리고 충성심을 지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많은 기업들이 감원 또는 임금삭감 등을 통해 조직을 재정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의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것은 매우 어려운 과업이지만 우리의 시스템이 세계 여타 지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유지해야 할 요소에 대해서는 계속 힘을 쏟고 개선하거나 버려야 할 요소는 과감하게 추려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강하게 유지해 주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일정수준의 저축률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충분한 저축이 없이 경제가 발전한 경우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지나친 저축은 불균형을 초래하지만 상당한 저축의 부족은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입니다.

둘째, 높은 수준의 노동윤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교육과도 관계가 되겠지만,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높은 수준의 노동윤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름아닌 피고용인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의식과 자긍심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시경제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을 잡고 금리수준을 낮추는 것이 정책목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재정과 대외경쟁력을 건설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의 일본경제는 경기침체, 거품경제 또는 구조적인 문제의 여파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나, 제가 앞서 언급한 중요한 요인들 중 몇가지 즉, 저축, 노동윤리, 낮은 인플레이션, 저금리, 대외경쟁력 그리고 강력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경제가 이러한 요인을 유지하는 한 언젠가 다시 발전의 길로 되돌아올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번째 주제인 미·일 무역마찰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문제는 매우 편안한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미묘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달 호소카와 총리와 클린턴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양측이 상대방이 현재 처해 있는 국내 사정 및 정치적 어려움을 서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 있다고 봅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미국내 정치적 입장은 편치 못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도 고용문제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또한 의료보장제도의 수정과 관련하여 의회와 절충하여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

다. 더구나 불행히도, 클린턴 대통령은 최근 여러가지 국제문제에 대한 중국, 북한 그리고 러시아 등과의 외교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미국내에서의 클린턴 대통령의 입지, 특히 의회에 대한 입장은 매우 어렵고 난처하며, 이러한 상황때문에 일본과의 무역문제 협상에 있어 타협을 쉽게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에 대한 지속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도 국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제문제로 생각치 않으며, 실제로 언론기관들이 보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습니다.

호소카와 총리도 클린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일본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미묘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연립내각은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정당간에도 견해차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당의 경우 세계개혁이나 국방 등에 관해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자민당은 연립내각구성에 항상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호소카와 총리는 미국과의 무역문제에 대해 대담하고 과단성 있는 지도력을 행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미·일 무역문제는 양국이 모두 정치적 측면을 지나치게 부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양측 협상대표들을 좌절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행하게도 미국과 일본간에는 상호불신감이 존재하며, 서로 싫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측 협상대표들은 완강하고 융통성 없는 일본관료들에게 싫증을 내고 있으며, 일본측 협상대표들은 호전적인 미국측 협상대표의 태도에 진력이 나 있습니다. 일본측은 미국측이 문제해결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며, 특정기업의 이익을 공식협상을 통하여 실현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국관계는 정체적인 것이 너무 많이 관련되어 있고 너무 많은 오해 또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역불균형 문제, 특히 미·일간의 불균형문제는 환율, 시장접근 또는 거시경제정책 등 단순한 문제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무역불균형이 1960년 이후 지난 30

년간 계속되어 왔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환율은 1달러당 360엔에서 105엔으로 절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환율의 변화(엔고)가 있었지만, 무역불균형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일본경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무역불균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외국 수출업자의 일본시장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함을 인정합니다.

저는 지금의 일본경제가 30년전에 비해 훨씬 개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역불균형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환율변화, 거시경제정책, 시장접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무역불균형은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을 생각해야 하며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 견해로는, 무역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일본 제조업의 공급능력의 상당한 차이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제조회사의 경우 대략 생산의 25%는 미국이 아닌 제 3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아직 6%에 불과합니다. 독일의 경우도 15%나 됩니다. 이것은 1960년대 이후 지난 30년간 미국기업들이 유럽이나 아시아로 대거 진출하였고, 그 결과 공급능력에 있어 심각한 격차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일본은 소비보다 공급이 많으며, 미국은 공급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역불균형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산업구조, 저축, 국가간 투자 파트너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나옵니다. 긴 시간을 이 문제에 할애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무역문제는 환율, 거시경제정책, 시장접근 등 많은 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 어느 하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역불균형을 미·일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일 협상에서

는 아직까지 이와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논점으로 제기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언급한 이러한 문제들 — 즉,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 미·일간의 무역불균형과 무역분쟁 — 은 저의 한국친구들에게 좋은 교훈 또는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경제 역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제적 위상 또한 매년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감에 따라 세계 각국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한국에 대해 보다 책임있고 국제적 지위에 상응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일본이 이러한 문제를 이미 해결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막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야할 길은 멀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제 발표를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질의 구 석모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사공 일 박사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짧은 시간동안에 교텅 회장께서는 요점들을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실로 교텅 회장의 재능과 박식함에 감탄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저는 두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어떻게 일본경제를 강력하게 유지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교텅 회장께서는 저축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저 역시 동감입니다만 저축이 국내투자에 맞먹을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이유가 되고 있으며 외국과의 마찰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높은 저축률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동시에 대외흑자를 최소화하도록 투자지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교텅 회장께서 무역분쟁에 있어서 해외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좀더 언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무역불균형은 근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공급능력 차이에 기인한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교텅 회장께서 언급하신 것은 협의의 공급 능력, 주로 제조업의 생산능력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업 또한 중요하며 최근에 들어서는 서비스분야가 어떤 의미에서 제조업보다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까. 일본이 무역흑자를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공급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본측이 농업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해 충분한 시장개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국과 일본간에 전략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장 및 공급자와 수요자의 근접성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우리는 역내 국가간의 협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바, 역내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에 관한 교텅 회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응답 교토회장

아주 적절한 세가지 질문을 제기하여 주신 구 석모 박사님께 대해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인 저축에 관해서는, 모든 국가가 저축을 지나치게 많이 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 발표 내용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마찬가지로 표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하였던 것은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저축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가들이 저축의 부족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이나 경제개혁을 추진중인 러시아, 그리고 저축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다면 이는 다른 국가에서 지나칠 정도의 저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모든 국가들이 저축없이 소비만을 지향한다면 세계경제는 실로 어려움에 빠져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저축을 할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이 있는 국가들은 저축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무역문제에 관해서도 구 박사님께서 잘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특히 의도적으로 “무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무역인 서비스 분야를 제외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눈에 보이는 무역에 서비스 분야를 포함시킨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예로, 미·일관계에 있어 일본은 보이지 않는 무역거래에서 상당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만약 두가지 무역-눈에 보이는 무역과 보이지 않는 무역-을 모두 합할 경우 경상수지는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양국간의 불균형은 훨씬 축소될 것이고 미·일무역은 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심지어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많은 국가, 특히 선진국의 경제구조가 눈에 보이는 산업에서 서비스 부문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산업으로 이전해 가고 있다고 생각

하며, 무역수지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언젠가는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 분야에 관하여, 저는 변명의 여지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며, 여러분께서도 저와 동감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관하여 일본과 한국은 모두 작년말 UR협상 이후 중요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며, 아마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타 국가, 특히 농업 부문의 보호장벽이 광범위하게 마련되어 있는 유럽과 미국 등 우방에게도 전세계적 수준에서 협조하여야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 석모 박사님의 세번째 지적에 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의 경제활성화의 원천은 — 최소한 지금까지는 — 노동 분야의 수평적 협력관계의 발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아시아지역을 경제발전의 수준차가 심한 수직적 지역(vertical region)이며, 이 지역 내 국가들은 앞선 국가의 경험을 토대로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향후 이 지역 경제발전의 원천은 수평적 분업을 기반으로 하는 역내투자자와 무역의 급속한 확대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앞서 발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경제의 가장 큰 시련은 어떻게 산업구조를 재편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의 전통적이고 기계적 유형에서 기술지향적 형태로의 변화는 다른 국가로부터 기계지향적 제품의 수입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임을 뜻합니다.

이 과정은 역내 국가간의 무역과 투자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경제의 개편과 구조조정의 성공은 동아시아지역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저는 유럽이나 북미에서의 지역주의 확산에 대해 약간 염려하고 있으나 동아시아에서도 이같은 추세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동아시아지역의 경우 지역주의가 존재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지역주의화는 역외 국가에 대한 차별화를 시도하는 인위적 제도화

가 아닌 실질적 과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추세는 이 지역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연적인 토대와 공개적 원칙 위에서 행해지는 한, 지역간 무역 및 투자의 확대는 환영할 만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과 일본간의 경제 및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는 노동 분야 및 지역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한층 더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질의 이 재웅 (고려증권 부회장)

교텅 회장님의 분명하고 솔직한 발표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회장께서 지적하신 일본경제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한 다섯 가지 전통적인 장점에 관한 것입니다. 교텅 회장께서는 다섯 가지 옛 범례 또는 철학이 앞으로 새로운 국제적인 범례나 기준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옛 범례가 형성된 후, 1882년 페리제독이 일본에 왔으며 이어 메이지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 문화 등에 의해 100년 이상 뿌리를 내려왔으며, 그 결과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것은 쉽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번째 질문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환율에 관한 것입니다. 교텅 회장께서는 일본의 엔화가 1달러당 360엔에서 100엔 대로 평가절상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1달러당 260엔이 인화된 것입니다. 만약 이 수치를 현재 기준에 적용하면 1달러당 105엔이 0엔이나 1엔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이는 어려운 것이며, 미국과 일본간에 구매력이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일본 엔화가 1970년대 또는 1980년대의 미국 달러화와 같이 계속 강세를 지속한다면 일본경제는 지탱될 수 있을까요? 이 주제는 국내투자에서 국제적인 이익으로 변화할 수 있는 일본의 철학과 범례에 관한 첫번째 문제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두가지 사항에 관한 교텅 회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고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용 부회장께서는 경제를 비롯, 일상생활속에 오랫동안 심어져 온 전통에 대한 일본인의 변화능력에 관해 매우 정확하게 관찰하신 것 같습니다.

일본경제철학의 고유요소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며, 일본이 유럽이나 미국처럼 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본에는 많습니다. 저도 이것이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와 시장은 고유의 역사, 문화 그리고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의 어느 날 모든 경제와 시장이 하나의 단일 경제 및 시장으로 통합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차이와 경쟁이 존재하더라도, 모든 국가들이 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경제시스템의 가장 큰 결함은 외부로부터 다소 격리되어 있을 경우에 지나칠 정도로 잘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가치기준과 지식, 철학을 공유하였던 시기에 일본경제는 매우 잘 운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이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된 이유는, 일본경제가 급격히 성장하여 세계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격리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다고 이제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실험실 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사정이 이러한 만큼 일본은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바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사람들도 일본식 형태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 면에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인이 현행 제도 가운데 유지되어야 할 요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의 제도 중 어떤 특정요소는 다른 나라의 제도에 비해 뛰어난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외국인들에게 확신

시키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모두들 이러한 부분들은 함께 나누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최근 미국이나 유럽의 경제가 일본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회복해가고 있다는 뉴스를 듣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매우 환영할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공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일본의 시스템을 철저히 연구하여 자신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를 주저없이 받아들인 동시에 자신들 시스템의 장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산업의 최대 강점은 개개인의 창의력이 일본에서 보다 훨씬 더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경제 회복에 성공한 미국기업들을 살펴보면, 남들로부터 배우려는 의지와 함께 자신의 전통적인 강점을 잘 유지·조화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경제에 있어 자국의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것이 여타 모델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다양한 자본주의 모델에 관한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러한 모델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번째 질문인 환율문제에 있어서, 저는 일본 엔화가 다른 나라의 통화에 대하여 과거와 같은 속도로 계속 절상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저수준의 환율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통화에 대한 최적 환율은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 엔화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만약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교역가격을 근거로 엔화와 달러화의 구매력을 계산한다면 1달러는 100엔 이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지가(地價) 또는 곡물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달러는 300~400엔에 해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재화는 교역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엔화의 대미환율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

으며 궁극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갭(gap)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칙에 관한 문제는 매일매일의 환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의 환율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치, 경제 또는 군사 등 수많은 정보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환율변동을 경제문제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정치 또는 정보의 문제입니다. 일본경제는 1달러당 1엔 수준의 환율로는 지탱할 수 없으며, 현재의 1달러당 100~110엔 수준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수준의 환율에서 일본경제는 생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환율이 일본국내물가 수준 — 특히 비교역재화 가격 — 에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경우, 1달러당 100~110엔의 환율수준은 일본경제가 지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 사공 일 이사장

오늘날의 미국경제는 '60년대나 '70년대와는 크게 다르며, 훨씬 더 개방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무역의존도는 '60년대에는 5~6%에 불과했으나, 오늘날에는 거의 16~17%로 일본의 무역의존도 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무역 및 재정적자가 계속 증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케인즈이론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와 기업들도 많은 부채를 안고 있어 이자율정책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수출에 더 의존하고자 합니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라는 용어는 개발도상국에서만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미국의 의회를 비롯한 경제정책담당자들조차 미국의 수출주도형 성장에 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가까운 시일내에 바뀔 것으로는 생각치 않습니다. 또한 일본의 무역흑자 역시 가까운 시일내에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일간의 무역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토 회장께서는 일본이 어떤 조치

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호소카와 총리가 정치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음은 알고 있으나, 제 의견으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바꿀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소위 미국의 강력한 일방주의에 말려들 것이며, 이것은 일본 및 다른 국가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기대하는 유일한 지도력은 일본으로 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교토회장께서 일본총리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 교토회장

저는 총리가 아니며, 이러한 가정하의 질문에 대해 대답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리가 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사공 일 박사께서도 이미 아시겠지만, 국제적 불균형에 관한 근본적이고 유일한 설명은 각국의 저축과 투자간의 불균형입니다. 저축과 투자의 균형은 국제적 불균형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 될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문제가 모든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나라는 흑자이고 다른 나라는 적자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문제를 양측의 입장에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양쪽 경제에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날 미국경제에 관한 사공 일 박사님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규모 대외적자로 나타나는 대규모 예산적자가 있을 경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적자를 조정하기 위해 긴축 금융통화정책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내외적인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일본 및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무역상대국들도 미국의 긴축경제정책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긴축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데 미국경제정책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외부로부터의 수요, 즉 순수출을 늘리는 것입니다. 사공 일 박사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국정부는

미국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무역상대국들에게 시장을 개방하고 국내수요를 증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상황입니다. 이것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미국과 무역상대국이 서로 협력해야만 합니다. 일본측으로서도 해결책이 그리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모든 좋은 해결책은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즉, 일본은 국내수요를 일본내에서 충족되도록 하기 위해 경제의 모든 부문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식 및 비공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내수시장의 성장을 자극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며, 호소카와 총리도 같은 선상에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문제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재정악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세금감면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호소카와 총리는 대장성과 협력하여, 향후 3년간 소득세를 25% 경감하고, 이어서 소비세를 3%에서 7%로 인상할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세금개혁안은 경제인, 정치인 등 대부분의 일본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상은 연립정부내에서의 의견차이로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삭감은 일년으로 끝나고 말았으며 나머지는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측 협상대표들이 호소카와 총리가 세계개혁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사실에 대해 매우 불쾌해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호소카와 총리의 입장을 동정하며, 미국측의 유감이나 반응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본국민들도 자국이 세계경제를 지탱하는데 있어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본정부가 분명하고 결정적인 정책을 펼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의 제도란 때때로 매우 비능률적이고 시간이 걸린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국가들간의 협상에서는 상대방 국가의 상황에 대해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총리는 아니지만, 호소카와 총리는 사공 일 박사의 제안에 고마워 할 것으로 생

각하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갈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사공 일 이사장

저는 현재 일본이 처한 상황과 교텅 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의 서부활극식 일방주의(western-style US unilateralism)’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텅 회장께서 말씀하였듯이 일본국민들이 종전과는 달리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구상을 대체로 지지한다면, 일본의 헌법상 절차는 잘 모르겠으나 국민투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싱턴 정가의 유력인사 한 분— 아마 교텅 회장께서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은 “일본은 강하게 밀어부칠수록 더 많은 것을 양보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최근 휴대용전화에 관한 협상에서도 일본은 “안된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였지만 결국은 미국측 주장에 굴복하였습니다. 만약 상황이 이렇게 계속되면 미국측은 더욱 세차게 밀어부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측이 무엇인가를 할 수는 없는지요?”라고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일본의 정치제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본국민이 대체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대해 지지하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슈퍼 301조가 발동된다면 우리는 일방적이고 강력한 미국의 통상압력을 받게 될 것이며, 미국측은 이러한 조치가 소위 ‘일본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난 번 클린턴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했을 때 이것은 유럽공동체에 대한 수단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Jeffrey Garten이 싱가포르를 최근 방문하였을 때 그는 이 조치가 ASEAN이나 여타 국가가 아닌 일본만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사실이라고 믿지만 슈퍼 301조는 어느 국가에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발동되면 세계경제에 유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일본측이 과감한 이니셔티브를 취함으로써 우리 모두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공 일 이사장께서 매우 중요한 점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역분쟁에 관한 문제는 중대한 정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아주 근본적인 경제문제입니다. 향후의 상황을 예상해 볼 때 일본산업의 제 3국으로의 이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행정부가 외국자본에 의한 생산설비의 미국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미국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유럽경제는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며, 아시아지역에서의 사업기회가 더 크기 때문에 일본기업들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는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시아지역은 높은 수준의 수평적 분업을 통하여 급속히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저축증대와 투자불균형 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수년내에 일본의 흑자규모를 축소시키기는 커녕 다른 국가와도 무역불균형을 초래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엔화 평가절상으로 인해 앞으로 일본의 무역흑자가 줄어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무역적자국이 저축증대를 통해 투자 불균형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제 2의 일본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공 일 박사님의 지적이 옳습니다. 일본의 대미무역흑자가 없어지더라도 정치적 이유에서의 일방적인 행동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한 일본의 반응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본은 현실을 직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상황은 호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세계시장의 통합과 국가경제간의 상호의존성 증가가 갖는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처럼 발전된 상태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점에 크게 의존하였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자동차 등을 포함, 제조업 분야에서의 일본과 미국의 상호의존관계는 매우 긴밀하며,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양국의 정책입안책임자들이 국제화와 상호의존

관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게 되면 상대방 국가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책들이 많이 채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의 안 승철 (국민은행 이사장)

저는 교텅 회장님이 유명한 경제학자일 뿐 아니라 뛰어난 금융인으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일본의 금융제도는 1980년대 중반부터 근본적 재편작업이 진행중이며, 그 과정에서 거품경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금융산업이 재편되는 중입니다.

저는 한국 금융산업의 재편을 위해 일본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싶습니다. 일본 금융구조개편과정에서 무엇이 옳았으며, 무엇이 잘못되었던가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응 답 교텅 회장

저는 안 이사장님의 질문과 관련되어 있는 광범위하고 깊이있는 의미들에 대해서는 간략히 답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 이후,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순 되게도, 어떤 분야에서는 규제완화의 추진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우리는 규제철폐로 인해 야기될 문제점을 줄이는 데 대해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제도는 새로운 환경에 스스로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어날 지도 모르는 문제점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어느 정도 과감하고 재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완화조치를 추진코자 할 경우 제도의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기본적 힘이라는 것은 금융서비스 산업에 한한 것으로서, 이것은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신용과 시장참가자들의 위험부담

에 대한 공동책임 의식의 문제입니다. 규제의 완화·철폐는 항상 보다 큰 위험을 내포합니다. 시장참가자—즉 고객, 투자자, 예금주, 차용인, 은행가—들은 위험부담의 증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위험부담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 정부당국도 기업과 기관들이 충분한 조심성과 힘을 가지고 규제철폐의 결과로 빚어지는 보다 큰 위험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이 일본의 경험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들 중 몇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